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 경 혜(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우리의 삶의 궤적, 생애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위기, 생애사건 등에 대한 반응, 선택의 과정이며 결과이다.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발달에 주목한다면, 개인의 현재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과거 생애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삶의 질과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생애사(life history) 방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생애사 방법은 과거 삶의 과정에서의 구체적 선택과 행동이 현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역사적 격동기에 한평생을 지내온 세대의 경우, 이들 개개인의 생애사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생애사를 탐색하는 작업은 한국사회라는 구체적 공간 및 역사적 시간의 접점에서 개개인의 생애경로 및 현재 삶의 모습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남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방법으로서 생애사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생애사를 이용하여 수행된 한국남성에 대한 연구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남성의 생애과정의 급격한 변화를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남성의 삶에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남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상황적 특성변수들의 영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성들의 현재의 삶의 질이 과거의 다양한 생애과정의 축적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성인기 후기로 들어갈수록 개인이 살아온 생애경험 및 환경의 차이가 축적되어 개인차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제한점은 한국 성인남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반면 서구에서는 최근 들어 삶의 과정(process)에 대한 이해를 개개인이 살아온 생애과정 전체까지 확장 및 연계하여 탐색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서 생애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인간발달 및 가족의 삶을 탐색하는 체계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생애사의 방법론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생애사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은 또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의 발달과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생애과정 관점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개인의 일생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과정을 개인시간, 가족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인간발달 및 노화과정의 역사성, 다차원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하고 거시구조와 개인발달의 연계를 탐색하는데 탁월한 이론적 관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구 및 일본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의 소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남성연구에 생애과정관점을 적용하는 작업도 극히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남성연구에서의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여 생애사 연구방법 및 생애사 자료의 유용한 해석틀로서 주목받고 있는 생애과정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생애사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된 연구의 예를 통하여 한국 성인남성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애사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생애사 방법의 특징 및 남성의 삶 이해에서의 유용성

협의의 의미에서 생애사는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기록이다.¹⁾ 생애사 방법은 심층적, 질적 자료수집에 의한 접근 뿐 아니라 계량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두 방법은 아주 상이한 연구논리에 기초하여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심층적, 질적 생애사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도 시도되는 등 그 경계가 많이 완화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쓰이고 있다.

1. 양적 생애사 방법

1) 양적 생애사 방법의 특징

생애과정 관점의 대두와 함께 인간발달 및 가족에 대한 종단적 자료(diachronic data)를 수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양적인 생애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마리니(1978, 1984)의 경우, 질문지를 이용한 회고적 생애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으로 하여금 생애과정상의 주요 전이(transition)의 경험시기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다수의 연구들이 이렇게 질문지를 이용하는 회고적 생애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예: Marini, 1978, 1984; Hogan, 1980; Featherman & Sorenson, 1982).²⁾ 이렇게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전이시기(연, 월)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은 부정확한 기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

1) 생애사 방법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집단, 혹은 조직체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말로 이야기한' 기록 이외에 일기, 자서전, 편지 등의 '글로 쓰여진' 개인기록이나 2차적 문헌자료 등도 생애사 방법의 자료를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생애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생애사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2) 회고적·종단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외에 자주 쓰이는 방법은 인구조사 등 대규모의 횡단적 자료(synchronic data)를 조합하여 합성 코호트(synthetic cohort)를 만드는 방법으로 인구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예: Uhlenberg, Modell, Furstenberg, Hershberg, 1976). 이 방법은 합성 코호트 분석에 의존하여 실제 코호트의 행동과 변화를 유추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변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고적 생애사를 수집할 수 없는 오랜 옛날의 자료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규모 자료라는 점, 회상과 관련된 부정확성의 문제가 없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하겠다.

여 여러 전이의 경험순서를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양적인 생애사 자료는 출생 코호트간 비교(inter-cohort comparison)를 통하여 주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이는 코호트 자료가 단순히 개인 역사의 합이 아니고, 최소한 일정 범위의 설명을 가지며 사회계층같이 변수로서의 분석적 유용성을 갖는다(Ryder, 1965)는 가정에 기초한다. 코호트 간에는 그 크기나 구성에 있어 우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전쟁 이후에 나타난 베이비 붐 현상에 의한 코호트의 크기 증가나, 코호트간의 성비(sex ratio)의 차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코호트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과정 동안 직면하게 되는 역사적 맥락, 사회적 배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측면의 코호트 간 차이를 구성하게 된다. 어떤 코호트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또한 특정 역사적 사건·상황에 직면할 때 각 개인의 생애과정상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를 의미하게 되며, 그에 따라 그러한 사건들이 생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라이더(Ryder, 1965)가 생애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의 영향은 그 사건을 경험한 삶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라도 코호트간 차이를 가져온다는 '생애단계원칙'을 가지고 코호트의 생애경험과 사회적 변화와의 접합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바로 근접하는 코호트들(successive cohorts)간에도 구성면이나 행동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사회변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라이더는 주장하였다. 즉 코호트간 분화와 사회변화와의 상호의존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가정은 사회변화가 이를 접하는 연령에 따라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인간발달이론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 개인의 삶이 영향을 받는 과정을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시기효과(period effect)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라이더는 이를 '연령·시기(age-period specific)의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모든 코호트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효과와 기본가정과 중요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양적 생애사 방법을 이용한 서구의 실증연구들은(Marini, 1978, 1984; Hogan, 1980; Featherman & Sorenson, 1982) 주로 성인기로의 전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성인기로의 전이를 구성하는 최종학교 졸업, 취직 및 결혼 시기를 코호트간 비교하여 그 유형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분위 연령분포(inter-quartile age range)와 중간값(median age)을 코호트간 비교하는 방법이다. 중간값은 각 코호트의 반수(50%)가 특정 전이를 경험하는 시점의 연령을 의미한다. 사분위 분포는 각 코호트의 25%가 특정 전이를 경험하는 연령과 75%가 전이를 완수하는 연령간의 차이로 이를 '각 코호트가 특정 전이를 완수하는데 걸리는 기간(duration)'이라고 개념화하여 비교한다. 한편 1사분위 값과 3사분위 값 대신에 각 코호트의 10%가 전이를 완수하는 연령(1st decile)과 90%가 전이를 완수하는 연령(ninth decile)을 코호트간 비교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예: Modell, Fursternberg, & Strong, 1978). 또 이 두 연령간의 차이, 즉 각 코호트의 90%가 전이를 완수하는 기간을 범위(spread)로 개념화하여 이를 코호트간 비교하기도 한다.

양적 생애사 방법을 이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모델 등(Modell et al., 1976)이 19세기말의 필라델피아의 인구 조사 자료와 1970년의 미국 전역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청년기와 성인기의 경계를 규정하는 졸업·취업, 부모로부터의 독립·결혼 등 몇 가지 인구학적 생애 사건들의 시간적 유형의 변화를 보여준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코호트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1) 전이의 일반성(prevalence), 2) 전이시기(timing)와 기간(spread 혹은 duration), 3) 전이들간의 연령조합(age-

congruity of a pair of transition), 4) 통합성(integration)의 측면에서 코호트간에 차이가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2차 대전 후에 학교 졸업·취업·결혼의 과정을 거치는 연령의 코호트내 분산이 줄어드는 역사적 패턴을 보여, 기간은 압축되고, 전이의 속도도 빨라져서, 성인기로의 전이가 연령등급화되는 정도가 역사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전이의 일반성이 증가하여 성인기로의 전이과정이 보다 규범적 패턴화되었고, 전이간의 연령의 중복성과 통합성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성인이 전이유형의 균일성의 증가를 이들은 산업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가족이 유일한 경제적 단위였을 때에는 전이의 시기를 가족의 경제적 이해에 의해 전략적으로 조절하였던 반면, 산업화와 함께 가족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개인의 시간표, 규범적 시간표를 따를 수 있는 여유·용통성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연령 규범에 따르게 되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생애 전이시기의 통제 핵심이 가족에서 시장이나 학교 등의 공적인 영역으로 전이가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호간(Hogan, 1978, 1980, 1982)과 윈스버로우(Winsborough, 1975, 1979)의 연구도 20세기 중반에 태어난 미국 남성의 경우, 그전의 남성들에 비해 전이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결과를 보여 모델 등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많은 일치점을 보였다. 윈스버로우는 코호트 분석 결과, 모델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인기 전이기간의 축소라는 장기적 추세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면서, 그렇지만 어떤 특정 코호트에게는 역사적 사건이 독특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역사적 사건의 영향은 '연령-시기가 상호작용하는(age-period specific)' 효과를 보인다는 지적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전쟁에 따른 군입대 경험에 있어 나타나는 코호트 간의 차이이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군입대 연령에 해당되었던 코호트의 경우는, 군복무로 인해 그 전후의 코호트보다 성인기 전이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윈스버로우의 이러한 논의는 라이더(Ryder)의 '생애단계 원칙(life stage principle)'과 맥을 같이하는 지적이며, 생애사와 역사와의 상호성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한편, 마리니(Marini, 1987)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 중반기에 성인기 전이를 경험한 코호트를 분석하였는데, 20세기 전반에는 졸업과 취업은 늦게, 결혼은 빨리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전이기간이 축소한 반면, 후반으로 오면서 이러한 양상은 부분적으로 역전하는 경향을 보여 결혼과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전이에 걸리는 기간도 다시 증가함을 보였다.

휘더맨과 소렌슨(Featherman & Sorenson, 1983)은 노르웨이에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개인의 생애과정의 시기 패턴의 구조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21, 1931, 1941년 출생 코호트 300명을 인터뷰하여 14세~30세까지 기간 동안의 생애사건사(continuous event history)를 수집하였다. 이들 세 코호트가 14세~30세까지의 생애를 보낸 시기는 1935년부터 1971년으로 노르웨이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은 시기로 대표된다. 1921년 출생 코호트는 경제적 공황기인 1930년대에 학교를 졸업하고 제2차 대전후인 경기 회복기에 30대가 된 집단이다. 한편, 1931년 출생 코호트는 2차 대전이 끝날 때 학교를 졸업하기 시작하여 성인기 초기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를 겪은 연령층이다. 1941년 출생 코호트는 전후 경기회복이 시작되는 55년에 졸업하기 시작하여 성인기 초기에 현대 복지국가로의 발달시기를 맞은 집단이다. 코호트 분석에만 의존한 호간이나 모델 등의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을 통한 회고적 구술 생활사를 수집하여 이 기간 동안의 전이 시기 패턴을 8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코호트별로 이

들 유형을 비교하였다. 노르웨이에서도 산업화와 함께 전이 시기의 연령계층화가 현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연령과 연결된 전이 행동에 있어 코호트내에서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고, 더 동질적인 연령 관련 행동을 보이는 동질성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졸업·취업·결혼의 세 전이를 모두 마치는 기간이 젊은 코호트로 올수록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제도가 세분화되고, 이들 제도들의 운영 및 정책 시행상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지표로 쓰게 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과정의 구조화에 연령층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웨더맨과 소렌슨은 노르웨이 남성의 생애 과정상 연령등급화 정도가 증가된 가장 큰 원인으로 고등교육 제도의 도입과 군대 복무의 의무화를 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성인기로의 전이가 역사적으로 보다 규범적이 되고, 보다 압축된 시간내에 이루어져서 전이기간이 짧아지고, 보다 연령등급화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압축은 교육·취업 등과 같은 공적 영역(public life)에서의 역할과 결혼, 첫 자녀 출산 등과 같은 사적 영역(private life)에서의 전이간의 중복을 증가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과정의 이러한 변화, 혹은 재구조화는 산업화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산업화로 인한 가족시간 특히 부모자녀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감소, 경제적 형편의 개선 등에 따른 개인의 의사결정 및 선택의 증가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애과정상의 전이시기의 통제가 부모·가족 영역으로부터 기업·시장으로 이동하였다고 분석된다. 또한 공적 고등교육제도의 확대에 의한, 학제, 학교입학의 연령등급화도 이러한 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러한 연령등급화 증가추세를 백인 중산층 규범이 점차 확산되면서 계층·지역·인종별 하위 집단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미국 사회의 동질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Hareven, 1977; Nodell & Hareven, 1978).

2) 양적 생애사 연구의 예 :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의 변화³⁾

연구목적 :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과정의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과정을 구성하는 졸업·취업 및 결혼전이 행동의 시기·순서·기간을 코호트간에 비교하여 전이 패턴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각 전이를 경험한 연령·시기·기간을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군복무 여부 등 배경변인별로 코호트내의 비교를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셋째, 전이들의 순서를 유형화하여 규범적/비규범적 패턴의 분포를 코호트간에 비교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표 1>에서 보듯이 1920~1959년 사이에 출생한 4개의 10년 단위 출생 코호트(1920~1929, 1930~1939, 1940~1949, 1950~1959)에 속하는 496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성인기로의 전이에 관한 생애사 자료이다. 전이의 시기를 알기 위하여 졸업·첫 취직·결혼·군입대 및 제대에 대한 연도와 달을 질문하였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령을 함께 질문하여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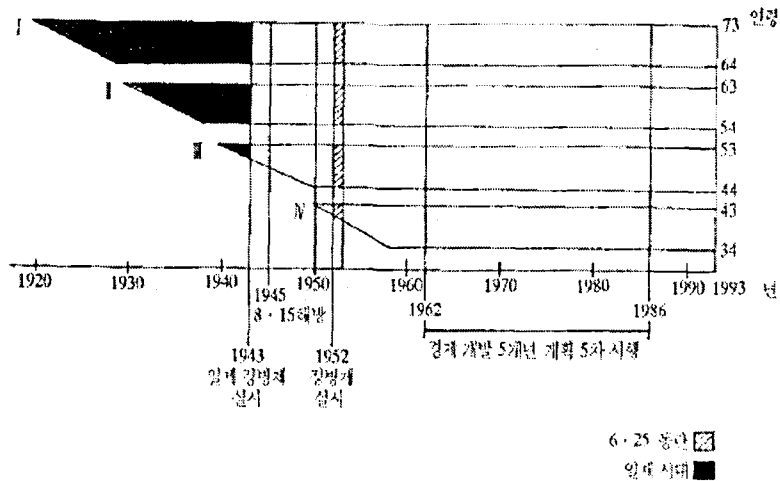
3) 이 사례는 한경혜(1993a)의 논문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교 검토하였다. 이들 전이의 순서는 각 응답자별로 이들 전이가 일어난 연도와 달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였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면접조사 시에 각 응답자에게 전이의 순서를 쓰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0년대 코호트에 속하는 노인 응답자는 노인정과 노인대학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1930년 이후 코호트는 직종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직장 단위로 수집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출생 코호트

코호트	N (%)
cohort I (1920~1929년 출생)	95 (19.2)
cohort II (1930~1939년 출생)	122 (24.6)
cohort III (1940~1949년 출생)	139 (28.0)
cohort IV (1950~1959년 출생)	140 (28.2)
계	4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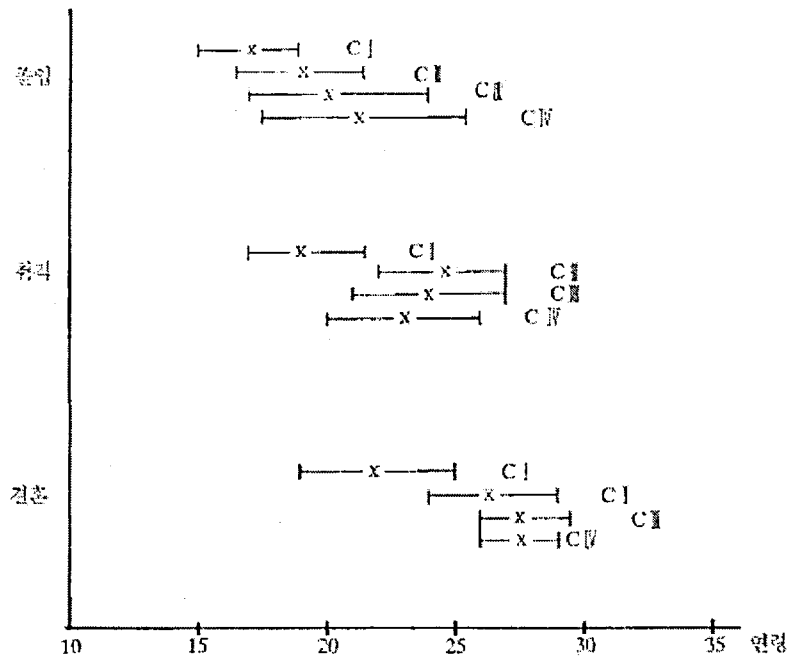
이들 4개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는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의 맥락에서 비교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코호트 I 은 1920~1929년 출생한 집단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출생하여 아동기·청소년기와 청년기 초기를 일제시대에서 보냈다. 징병이나 징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제2차 대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코호트이다. 코호트 II 는 1930~1939년 출생한 집단으로 아동기를 일제치하에서 보내고, 대부분이 공습·폭격의 경험 등으로 제2차 대전을 기억하며, 6·25동란을 전후하여 청소년기와 청년 전기를 보내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경우가 많다. 1940~1949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 III 은 해방 직후와 6·25 혼란기에 아동기를 보내고 전후 복구가 활발하고 산업화가 시작/가속화된 시점에서 청년기 전후반기를 맞으면서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에 큰 몫을 하게 된다. 코호트 IV 는 1950~1959년 출생한 집단으로 실제적 의미로 6·25이후의 세대이며 산업화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청년 초기를 맞은 코호트이다.



<그림 1> 조사대상 4개 코호트의 생애과정과 역사적 시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⁴⁾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교 졸업(26.2%), 중학교 졸업(17.7%)으로,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6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1/4이 성장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류에 속하였다고 하였으며, 62.5%의 응답자가 중류에 속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0세 이후의 청소년기의 주 성장지를 보면 약 반수 이상이 군부 이하의 농촌지역에서 자라났으며, 약 30%의 응답자가 대도시에서 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2.7%가 군복무를 하였으며, 27.7%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전이시기와 기간의 코호트간 비교 : 성인기의 주요 전이인 졸업·취직·결혼의 각 시기와 기간을 도표화하여 코호트별로 비교하여 보면 전이시기 유형의 역사적 변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다(그림 2). 각 코호트의 25%와 75%가 전이를 경험하는 연령을 양 극단으로 하여, 막대의 길이는 각 코호트가 특정 전이를 완수하는 기간(duration)을 의미한다. 막대 위에 표시된 X표는 각 코호트의 50%가 전이를 완수하는 중간값 연령을 나타낸다. 졸업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전이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결혼에서는 기간의 축소, 즉 연령등급화의 경향이 매우 뚜렷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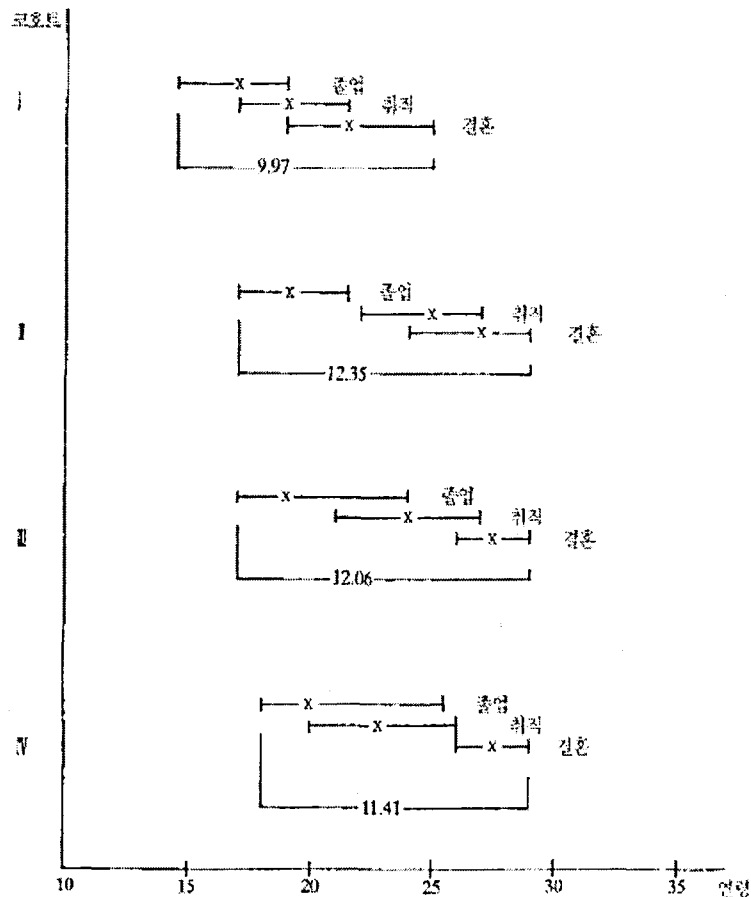


<그림 2> 졸업·취직·결혼 시기 및 기간의 코호트간 비교

4) 응답자의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급격했던 사회에서는 코호트간에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나 성장지역의 특성 등은 사회변화가 코호트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응답자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호트에 따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한경혜 (1993a)의 논문에 제시되어있다.

성인기 전이를 구성하는 과정이 코호트 수준에서 볼 때 대개 '졸업→취직→결혼'의 순서로 구성되므로, 성인기 전이 과정의 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추로 '각 코호트의 25%가 졸업을 완수하는 연령에서 75%가 결혼을 완수하는 연령'까지의 차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본 조사대상 4개의 코호트의 성인기 전이 기간을 도표화하여 보았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코호트별 성인기 전이 기간은 코호트 I 이 9.97년, 코호트 II, III은 각각 12.35년, 12.06년, 그리고 코호트 IV는 11.41년으로 나타났다.

1920~29 출생 코호트 I 이 코호트 II, III, IV에 비해 일찍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내에 성인기 전이를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에 청년기를 맞이한 이들 연령층은 비교적 균일한 연령범위내에서, 일찍 성인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결혼 전이 연령은 코호트 I 이 코호트 II, III, IV에 비해 가장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I의 전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학교와 직업이라는 가족 외적 영역에서의 전이(non-familial transition)가 일찍, 그리고 상대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동란을 전후한 혼란기에 성인기로의 전이를 완수한 코호트 II의 전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호트 III과 IV로 올수록 점차 전이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와 함께 전이 기간이 압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구와 일본의 패턴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성인기 전이 기간의 코호트간 비교

성인기 전이 시기의 코호트내 비교 : 코호트간 비교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동일 코호트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차이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시집단내에서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거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생애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과정(process)의 이해를 위해서 코호트간 패턴의 비교와 함께 하위 집단간 비교가 병행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교육수준, 군복무 여부, 성장시 방위가족의 경제적 수준의 3가지 배경변인에 따른 코호트내 비교를 수행하여, 이들 변인이 성인기 전이 시기와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 교육수준과 성인기 전이 시기 및 기간

성인기 전이를 완수하는 기간에 있어 교육수준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코호트별로 비교한 결과(표 2), 학력집단간 전이 기간의 차이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구에서 학력 집단간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대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코호트 II, III, IV에서 대졸 이상 집단의 전이 기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관찰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내에 최종학교 졸업·취업 및 결혼을 마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호트III, IV에서 국졸 이하 학력집단에서의 전이 기간의 증가와 대졸 이상 집단에서의 기간 감소 추세가 복합되어 이들 두 집단간의 전이 기간의 차이가 10년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전이의 연령 관련성이 낮고 전이 행동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2> 교육수준별 성인기 전이기간

교육수준 \ cohort	I	II	III	IV
국졸이하	103.51	13.59	16.75	16.50
중 졸	6.00	13.98	13.94	13.04
고 졸	9.26	10.17	10.66	10.97
대졸이상	7.16	7.20	6.83	6.35

②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성인기 전이 시기

다음은 각 코호트의 '25%가 졸업을 한 연령에서 75%가 결혼을 한 연령'까지의 차이로 측정되는 성인기 전이 과정의 기간을 경제수준별로 나누어서 코호트간 비교를 해보았다(표 3). 우선 코호트 I 에 비해, 코호트II, III에서 계층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서구에서 관찰된 동질화/연령등급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동질화 경향이 전이기간의 축소 형태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 상·중 집단에서의 전이기간의 확대에 의한 것이 관찰된다. 1950~1959년 출생 집단인 코호트IV에서 경제수준 상층 집단의 전이기간이 축소되면서, 다시 집단간 차이가 늘어난 것이 흥미롭다. 이는 상층 집단이 고학력으로 졸업 전이시기가 늦고 기간이 길었지만 취업과 결혼시기 및 기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르

고 짧았던 것에 기인한다. 서구에서 관찰된 전이기간의 축소 경향을 설명할 때 가족의 경제력의 향상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기적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집단에서 먼저 관찰된 것이 아닌가 추론해볼 수 있겠다.

<표 3> 성장시 경제적 수준별 성인기 전이

교육수준 \ cohort	I	II	III	IV
상	6.01	10.27	10.04	9.42
중	9.33	11.37	11.38	11.39
하	13.20	14.29	11.19	13.37

③ 군복무 여부와 성인기 전이시기

서구의 선행 연구들은 군복무를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성인기 전이의 시간적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의무 징병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종학교 졸업, 취직 및 결혼이라는 일련의 전이들과 연결시켜 언제 군입대를 할 것인가 하는 시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응답자들은 1920~1929 출생 코호트 I 에서는 군복무 여부에 따른 졸업시기 및 기간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이 코호트에서의 군복무 경험은 우리나라에 의무 징병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일본 군인으로 제2차 대전에 참여했던 것을 의미한다. 코호트 I 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이고, 학력수준이 낮으므로 군복무 여부가 졸업 시기 및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II 와 III 에서는 군복무를 한 집단보다 군복무 면제 집단에서 기간이 길고, 3사분위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군복무 여부별 성인기 전이기간

교육수준 \ cohort	I	II	III	IV
군복무	12.60	12.68	12.17	11.55
군면제	9.32	11.00	11.85	10.20

성인기 전이의 순서 : 생애 과정 관점에서는, 성인기 전이의 시기뿐만 아니라 이들 일련의 전이들의 적절한 순서에 관한 사회적 기대도 연령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서구의 선행 연구들은 역사적으로 성인기 전이 기간이 축소되고 연령등급화가 심화되는 경향과 함께, 전이가 비규범적 순서로 일어나게 되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코호트 비교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코호트 I 에 비해 코호트 II, III, IV 에서 전이 순서의 유형이 다양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각 코호트별로 전이 순서 유형을 살펴보

먼 코호트 I에서는 서구 및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규범적 순서로 밝혀진 '졸업-취직-결혼'의 순서 유형이 45.7%로 가장 많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졸업·취직·결혼을 한 후에 군복무를 하는 패턴이 16%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과 취직 이전에 결혼을 하는 유형이 7.4%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호트Ⅲ, IV에서는 이런 유형이 하나도 없는 점이 대조를 이룬다. 코호트Ⅱ, Ⅲ, IV에서 군복무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그 후에 취직·결혼을 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 후 군입대 사이의 기간에 취직을 하는 유형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군복무부터 제일 먼저 완수한 후에 졸업·취직·결혼을 다양한 순서로 조합하는 유형이 가장 최근 코호트IV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이 순서 유형을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규범적 유형(normative pattern)과 비규범적 유형(non-normative pattern)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호간(1980)이 순서 유형 척도(temporal ordering scale)를 만들어서, '졸업-취직-결혼'의 순서로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 '규범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규범적 유형에서 1가지 순서가 바뀐 경우 '중도적 비규범형(intermediate non-normative)', 2가지 순서가 바뀐 경우 '극단적 비규범형(extreme non-normative)'으로 분류한 방법을 참조하였다. 따라서 '취직-졸업-결혼'이나 '졸업-결혼-취직'은 '중도적 비규범형'으로 분류하였고, '결혼-졸업-취직', '결혼-취직-졸업', 및 '취직-결혼-졸업'은 '극단적 비규범형'으로 분류하여 코호트별로 비교하여보았다.

코호트 I에서 '극단적 비규범형'의 비율이 높고, 다시 최근 코호트 IV에서 이 패턴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코호트 I에서 '극단적 비규범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취직에 선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른 결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코호트Ⅱ, Ⅲ에서 '극단적 비규범형' 즉 결혼이나 취직 이후의 졸업 유형의 비율이 낮았다가 코호트IV에서 증가한 것은 대학원 진학 등 고학력자의 비율 증가 등에 따른 유형의 다양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학력자의 경우, 서구의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하였듯이 짧은 기간내에 세 가지 전이를 모두 완수하여야 하므로 전이간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비규범적 순서로 전이를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사료된다. 결혼이 졸업을 선행하는 경우는 결혼 연령 등급화의 증가와 졸업 시기의 연장이 복합된 것이며, 취직이 졸업을 선행하는 경우 서구에서 나타난 교육과 노동 시장과의 관계 변화 추세가 교육과 노동 시장과의 관계 변화 추세(Steven, 1990)가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겠다.

<표 5> 코호트별 전이 순서의 규범성/비규범성 유형

코호트	규범적 유형	비규범적 유형	
		중도적	극단적
I	68(72.34)	16(17.02)	10(10.64)
II	82(67.77)	36(29.75)	3(2.48)
III	112(81.16)	19(13.77)	7(5.07)
IV	107(76.68)	17(12.23)	15(10.79)

1920~59년 사이에 출생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생애과정은 그 패턴의 변화를 산업화에 따른 변화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경험으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그런 점에서 한국 동란을 전후하여 성인기로의 전이를 경험한 1930~1939 출생 코호트의 경우가 특이하게 나타났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역사의 흐름이 균일한 흐름(even flow)이 아니라 많은 돌출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라면, 코호트의 구성을 확일적으로 5년, 10년 단위 등으로 하기보다 특정 역사적 사건의 경험과 연결시켜 나누는 작업이 역사와 개인의 생애사 간의 진정한 연결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인기 전이 패턴의 코호트간 비교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성인의 지위 획득이 늦게, 그리고 오랜 기간 걸리는 과정으로 변화하였을 볼 수 있었다. 서구 및 일본에서 관찰된 '연령과 관련된 확일성'의 증가 추세가 일관되게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 전이 행동에서는 기간의 축소, 결혼 시기의 늦춤 등 연령등급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직·졸업에서는 산업화 이후의 코호트로 올수록 오히려 기간의 확대 경향을 보여주었다. 결혼에 있어서는 계층·학력 등에서 하위집단간 차이를 뛰어넘는 연령규범이 자리잡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반면, 서구와는 달리 취직·졸업의 시기 및 기간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도 흥미롭다. 플로레즈와 호간(Florez & Hogan, 1990)의 콜롬비아 연구에서 코호트내 이질성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고 연령등급화 정도가 오히려 완만함 감소를 보임을 관찰하고 연령등급화 증가가 산업화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단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속도에서의 차이,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코호트 비교를 통한 대규모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질적 생애사 방법5)

1) 질적 생애사 방법의 특징

질적 방법에 의한 생애사 수집은 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살아온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고 듣고 기록하는 연구자에 의하여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생애사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어찌 보면 공동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혹자는 생애사 자료를 '함께 쓰는 일대기(co-authored biography)'라고 칭하기도 한다. 생애사는 이야기하는 현재의 입장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뽑아낸 내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작업(유철인, 1995)이므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 연구자는 생애사 내용 구성작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생애사에 대해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상에게, 어떤 맥락에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버전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으로부터 생애사를 끄집어내는 순간 이미 생애사에 대한 해석 작업이 시작된다는 지적은 생애사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생애사 자료에 대한 해석 및 결과를 논의할 때, 어떤 맥락에서 생애사 수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충실한 보고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연령, 성

5) 본 고에서 제시된 질적 생애사 방법론에 대한 소개는 한경혜(2004)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gender) 등 연구자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 또한 생애사의 의미 재구성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성찰적 민감성이 요구되고, 연구자가 생애사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생애사의 본질적 특징으로 이야기(narrativity), 주관성(subjectivity), 시간성(temporality)을 지적한다. 생애사는 하나의 이야기/서술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담고 있으며, 주관적 관점을 보여주는 방법이다(유철인, 1995). 생애사의 기본적 특징 중에서 성인남성의 삶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특성으로는 '주관성'과 '시간성'을 들 수 있겠다.

주관성은 자신의 경험을 의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생애사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생활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이다. 경험이란,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감정 뿐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의 회상을 통해 말하여진다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삶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주관적 해석이 포함된다. 어떤 내용으로 생애사를 채우는가 하는 점도 또한 생애사의 주관성의 반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관계가 삶의 주요영역을 구성해 왔는가, 무엇이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가, 혹은 생애과정의 어떤 경험이 삶의 전환점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중요시하여 생애사 이야기의 내용으로 삼는가 하는 점은 개인의 주관적 선택이기 때문이다.⁶⁾ 이처럼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생애사는 일반적인 질적 방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생애사는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적용하는 고유의 이해의 틀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원하는 의미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특히 개인의 관점, 시각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한편, 생애사 방법이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시간성'의 강조에 있다. 특정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 방법은 삶의 흐름,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와 생의 전반을 관통하는 '연속성'이라는 축을 조망권 밖에 두게 된다는 제한점이 있다(이재인, 2004). 그런 면에서 과거의 회상을 통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의 과정 동안의 내적 역동 및 생애변화의 차원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축 상에서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개인이 적극적 행위자로서 생애과정 동안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성해온 세밀한 '생의 직조(life threads)'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살아오면서 직면한 사회적 제약, 삶의 기회와 전환점 등 일련의 생애사건 등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선택과 의사결정, 사회구조내의 각 개인의 위치와 이들의 행동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삶의 질에 연관되는지 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할 수 있다. 생애사는 특정의 시간적 공간적 현재에서 과거의 삶과 생애과정을 바라보며 이야기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사에 대한

6) 생애사 자료수집이 연구자의 의도, 질문에 의해 주도되고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관성, 선택성은 일정정도 제한받는다. 그러나 연구자의 질문에 대하여 생애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반응하여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역시 주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애사 자료수집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면접시간의 대부분을 쓰는 응답자에게 연구자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을때, '내 자녀가 바로 나이며,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응답하였다는 잘 알려진 일화(Frank & Vanderburgh, 1980)는 생애사의 주관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야기는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위치점검, 평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화와 일관성 창출을 위한 의미부여의 성격을 가진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애사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지만, 생애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고리 속에서 구성되므로 생애사는 시간성을 그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 생애사 자료는 또한 생애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수집하므로 삶의 '과정(process)'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며 수집되는 자료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성인남성의 현재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2) 질적 생애사 자료의 수집

생애사는 수집하는 자료의 범위에 따라 일반적 의미의 생애사와 '주제 중심적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사는 삶의 전반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하여, 주제중심적 생애사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생애사 자료는 일대 일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할 수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두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개인을 심층 면접하는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둘간의 관계 역동성에 의해 수집되는 자료의 질적 양적 수준이 영향 받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된다. 타인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집단면접보다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집단면접에서 오히려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제공되기도 한다. 집단면접은 집단의 크기 및 연령, 성 등의 집단구성원들의 특성의 조합에 따라 집단 역동성이 달라진다. 집단면접에서 집단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면서, 개인면접보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내재화한 문화적 가치, 사회적 담론의 영향을 탐색하기에 적합하다.

어떤 방법이든 자료수집의 초기에는 사회의 표준담론에 걸리지 않을 무난한 이야기가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면접의 횟수가 늘어나고 면접자와의 라포가 형성되면서 1-2차 면접에서 노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그 전의 면접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하는가 하는 점보다 면접횟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2회 이상의 만남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시간에 대해서 Frank(1980)은 생애사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 사람당 최소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면접을 위한 준비로 중요한 질문 내용이나 순서를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가는 것은 면접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일종의 지침일 뿐,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경험들을 자신이 편한 순서대로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순서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자와 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회상하기 괴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7) 연구대상자가 면접 초기에 이야기하는 사항이 종종 그 사람의 생애사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연구자의 민감성과 배려가 요구된다. 연구대상자가 그만 말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괴로운 경험에 대하여 털어놓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동조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3) 질적 생애사 자료의 분석

생애사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Lieblich, Tuval-Mashiach, & Zilber (1998)는 생애사 자료 분석방식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통합적인 내용분석(holistic-content approach)' 접근으로, 개별 생애사를 분석의 초점으로 하여 각 생애사의 주요한 테마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각 생애사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반면, '범주적 내용분석(categorical-content approach)' 방법은 여러 개의 생애사로부터 공통의 테마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개별 생애사의 전체성은 훼손되지만 생애과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과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코딩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방식의 분석 작업이 용이해지고 활성화되었다. 세 번째로, 생애사의 내용적 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전체적 구조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 '통합적 형태(holistic-form) 방식'이 있다. 생애과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점과 불행했던 시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삶의 질의 변화를 표시하게 하는 생애도표 구성방식이나 생애전이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되는 생애단계의 위치를 탐색해 보는 작업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가'하는 이야기의 조직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사 서술의 서사구조를 탐색하는 접근이다.⁸⁾ 이들 네 접근법은 구술된 생애사 자료의 분석에 있어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구체적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삶의 진행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체감을 구성하며 일관성 있는 생의 의미를 창출해나가는가 하는 과정 및 방법을 밝히는 작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4) 질적 생애사 자료 분석의 개념틀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은 이미 30여년 전에 생애사 연구가 서술적 연구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분석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 생애사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작업이 제한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적절한 분석적 개념틀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만델바움은 생애과정을 단순히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으로 생애사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그리고 '적응(adaptation)'이라는 세 개념을 기본틀로 하여, 첫째,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몇 가지 차원이나 측면으로 나누어 볼 것, 둘째, 삶의 주요 전환점 및 이들 전환점 전후의 생활조건들을 살펴볼 것, 셋째, 개인이 고유한 적응양식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영역 개념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동력들(forces)을 이해하기 위한 범주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전환점 개념은 개인이 경험하고 주도하는 주요 변화로서 생의 기간들을 구획하는 지표를 제공할 것

8) 앞의 세가지 분석 방식이 생애사를 '삶의 경험에 대한 반영'으로 보고 생애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사 분석은 생애사를 텍스트로 보고 그 조직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생애사에 대한 서사분석 또한 성인기 삶의 이해에 많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나 그 분석논리나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가 워낙 방대하므로 이 글에서는 생애사의 서사분석에 대한 소개 및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은 개인이 경험하고 주도하는 '변화'와 생애 과정을 통해 유지하는 '연속성'의 두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만델바움이 제안한 이들 개념들은 여전히 생애사 분석 및 해석에 매우 유용한 분석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Frank & Vanderburgh, 1980).

최근 인간발달 및 가족 연구에서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분석틀로 하여 생애사를 해석하는 작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의 일생을 연령에 의해 분화된 일련의 역할 전이(transition)들에 의해 구획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생애과정 관점은 이러한 전이들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과정을 개인시간, 가족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한경혜, 1990). 개인시간(individual time)이란 생애단계에서의 진행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개인의 역연령을 의미하며, 가족 시간(family time)은 가족의 자원과 필요를 반영하는, 가족의 상황과 역할조합 형태를 의미한다. 역사시간(historical time)은 개인이 특정 역할전이를 경험할 당시의 역사상의 위치를 지칭하며,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인간발달의 궤적 및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이들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세 차원의 시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생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진행되어진 역사적 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미시적 개인사와 거시적 역사적 상황을 연결짓는 중간단계로서의 가족발달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라는 관점(한경혜, 1991)이다.

생애과정 관점은 또한 개인의 전 생애기간 동안의 경로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 현재의 행동을 설명하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데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볼 때 성인기 삶은 생애전반기 삶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생의 다양한 측면의 상호조건성(inter-contingent lives)'에 주목하는데, 즉 개인의 삶의 경로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족영역에서의 요구와 필요, 자원 등이 직업영역에서의 요구, 상황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생애과정을 구성하는가, 혹은 개인의 역할경로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경로나 진행 속도 등에 의해 영향받는가 하는 점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조건성이 거시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및 시대적 상황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경혜, 1993b)한다. 따라서 성인남성의 삶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인간발달 및 노화과정의 역사성, 다차원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하고 거시구조와 개인발달의 연계를 탐색하는데 탁월한 이론적 관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구 및 일본에서는 생애사와 생애과정 관점을 연계하는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인간발달 및 가족 연구에는 생애과정 관점의 소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실제 연구에 생애과정관점을 적용하는 작업도 극히 부족하다.

5) 질적 생애사 연구 예

다음은 이상에서 간략히 논의한 생애사 방법의 제반 특성과 생애사 자료의 수집부터 해석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로서 필자가 행한 생애사 연구의 일부분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한 자료수집 방법인 주제 중심적 생애사 방법과 일반적인 전체 생애사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의 예를 모두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제 중심적 생애사 1: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⁹⁾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최근 생애과정 관점에서 성인기로의 전이패턴을 탐색한 서구 및 일본의 연구들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전이과정을 거치는 연령의 코호트 내 분산이 줄어들어 관찰되고 있다. 즉 현대로 올수록 전이를 경험하는 기간이 압축되고 전이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성인기로의 전이에 있어 연령등급화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가 개인 수준에서 갖는 의미는 청장년들에게 있어 직업과 가족이라는 생애과정상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의 역할전이의 시기가 중복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집약되어 일어나는 소위 life cycle squeeze (Oppenheimer, 1974)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젊은 남성들이 결혼 후 자녀출생에 따른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형성기가 독립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 직업경력상의 초기시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역할긴장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성역할과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의 성격 변화와 함께 아버지역할(fatherhood)의 내용 및 역할기대도 변화하면서 남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긴장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역할과 직업역할과의 상호관계를 탐색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에 집중되어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직업역할에만 치중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도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사회변화와 함께 성인기로의 전이기간이 단축되고(한경혜, 1993a), 가족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간의 상호관계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남성의 생애과정 변화와 함께 가족과 직업과의 연계관계를 이해하고, 남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한국가족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료수집 : 만 2세 이하의 첫 자녀를 가진 직장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아버지로의 전이와 관련된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업의 성격과 지위가 다양해지면 아버지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무 스케줄이 구조화되어 있는 기업근무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비교적 최근에 아버지로의 전이를 경험하였고 직업경력 상에도 초기에 속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전이의 시기별로 첫자녀 출생이 빨랐던 아버지와(early fathers), 늦었던 아버지(later fathers) 및 적정시기의 아버지(on-time fathers)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조사대상 선정은 눈덩이 표집에 의하여 임의표집하였다. 면접은 대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응답자에게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에 관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 및 출산 계획정도, 연령규범과의 일치정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아버지 역할 수행 내용 및 첫 자녀 출생과 관련

9) 이 사례는 한경혜(1996)의 논문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된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알아보고,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았다. 직업역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직업경력, 직급, 직업만족도 및 직업에 대한 성취지향성, 직업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질문하였다.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두 역할간의 상호영향과 긴장/갈등 존재여부 및 그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6세에서 34세의 분포(평균 29.2세)를 보였으며, 결혼기간은 1년 2개월에서 4년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2명의 응답자가 중매결혼, 7명의 응답자가 중매반연애반 결혼, 나머지 21명은 연애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의 연령은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분포하였고 남아가 17명, 여아가 13명이었으며, 부인이 취업을 한 응답자가 12명이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가 3명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핵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장경력 은 18개월에서 7년 2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소득은 115만원에서 170만원 사이(평균 129.7만원)에 속하였다. 응답자의 2/3이상이 가정에서 직장까지 1시간에서 1시간30분까지의 거리에 살고 있었으며 정규 출퇴근 시간은 평일의 경우 7시~7시 30분 사이에 집을 출발하여 6시 30분~7시경에 도착하며, 토요일은 2시~2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이상이었다.

아버지로의 전이시기 :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부모기로의 전이시기가 '늦은가' '이른가'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전이를 경험한 당사자가 인지하는 연령규범, 즉 '적정연령'에 기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전이의 시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결혼시기와 첫 자녀 출산시기의 간격의 차이로 부모기로의 전이가 연기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는 거시사회의 인구학적 추세를 반영하여 통계적 규범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연령 전과 후로 나누어 '이르다' '늦다'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표집 전체의 전이연령의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집의 25%와 75%가 첫 자녀를 가진 연령을 각각 이르거나 늦다는 분류의 기준으로 삼거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소규모이고 심층면접에 의하여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면접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준하여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의 시의성을 이용하였다. 아버지가 되는 적당한 시기에 대한 사회적 연령규범의 범위는 대부분의 응답자(71.4%)가 29-30세 사이를 지적하였다. 한편 5명의 응답자가 자신이 '일찍' 아버지가 된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전이 연령은 25세 1명, 26세와 27세가 각각 2명이었다. 33세에 첫 자녀를 본 응답자를 포함하여 6명의 응답자가 자신이 '늦게' 아버지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전이연령은 31세, 32세, 33세 각각 2명씩이었다. 나머지 19명의 응답자는 자신들의 전이가 주변의 친구나 사회적 연령규범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on-time)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전이연령은 27세-31세 사이에 분포하여 '일찍' 혹은 '늦게' 아버지가 되었다고 인지하는 집단과 실제연령에서 약간의 중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은 white collar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성격상 모두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집단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on-time'집단과 늦은 집단간에 각각 1명씩 대학원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가 있었다. 직장내 직급은 응답자의 연령단계, 직업경력 특성상 대부분이 평사원이었으나 '늦은' 집단에서 6명 중 대리가 3

명, 과장이 1명으로 나타나 아버지로의 전이가 ‘늦은’ 집단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서구의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직업경력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늦은’ 집단이 141.2만원으로 ‘빠른’ 집단(123.1만원)이나 ‘on-time’ 집단(125.4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로의 전이가 늦은 집단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적극적이고 역할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서구의 연구들은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부모기 전이에 적응할 심리적, 경제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길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 남성들의 경우,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은 세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로의 전이시기가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혼연령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로의 전이와 직업역할의 중복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전이연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응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모두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한 후에 결혼과 첫자녀 출산을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호간(Hogan, 1978)이 지적한 이른바 비규범적 전이순서유형은 본 조사대상자들에게서 관찰되지 않았다. 실제 전이가 ‘이른’ 집단은 군대의무가 면제되었거나 방위근무로 상대적으로 단기기간에 졸업, 취직, 결혼의 성인기 전이과정을 경험한 반면, 그 외의 응답자들은 군대에 복무한 기간 때문에 졸업, 취직, 결혼 전이의 순서나 시기중복은 ‘이른’ 집단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공통점은 결혼 이후 3년을 피임을 하면서 첫자녀 출산시기를 늦춘 사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자가 결혼이후 첫자녀 출산까지의 시간간격이 대개 1-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임술의 발달, 보급으로 자녀출산의 시기조정이 예전보다 용이하고 여성의 취업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아버지로의 전이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획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이 두가지 공통적 요인이 복합작용하여 아버지로의 전이와 직장에서의 초년병 시기가 대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취직과 결혼, 첫자녀 출산이 대개 3-4년내의 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1년 이내에 집중되어 경험한 응답자도 2명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로의 전이가 ‘빠른’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었다.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직업역할에 있어서 직장 초년병으로서 업무를 익히는 시기와 결혼, 출산 등의 가족역할의 중복에서 시간이나 에너지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복합적으로 경험했음을 이야기하였으며, 경제적 스트레스가 현실적 무게를 가지고 구체화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취직 후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집장만 등의 결혼자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걸 느끼게 되었지요.”

이러한 가족역할/직업역할간의 중복에 다른 시간/에너지 및 경제적 긴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첫 자녀 출산시기를 특별히 조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위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의 차이는 주로 결혼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가 이렇게 조절하지 않은 임신, 출산을 '계획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출산을 결혼하면 당연히 겪게되는 규범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아버지 역할의 의미와 양육참여 : 본 연구대상 남성들에게 어느 정도 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본 결과,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권위적 아버지상보다 자녀와 대화하는 아버지를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언급하며, 아버지 역할이 경제적 부양자 역할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 역할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아기돌보기의 주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아버지들은 주로 놀아주기 등 유희적 측면의 돌보기를 주로 하고 기저귀 갈기, 밤중에 재우기 등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일반적 유형이 본 조사의 응답자들에게서도 여전히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 아버지들은 대부분 형편·필요에 따라 아기 우유 먹이기, 재우기, 기저귀 갈기 등 가리지 않고 아기돌보기 전반에 상당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인 엄격한 성역할 분리는 많이 완화된 듯 하였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들도 자신들 세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같은 직장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다. 가족구조 측면에서 볼 때 점차 핵가족 단위로 살게 되면서 부모나 기타 친척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아버지 역할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응답자들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젊은 남성들의 아버지 역할수행 내용을 보면, 부인의 취업여부, 가족구조, 성역할 관념의 전통성 정도 등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따라 역할참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며 많은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면접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은 아기양육에 아버지가 제2인자이며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식의 전통적 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젊은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자녀양육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성역할 태도의 전통성 보다는 오히려 직장시간, 역할과다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 에너지의 부족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상당수 있어서 이숙현(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역할 · 아버지역할 간 긴장과 전이시기 : 첫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있어 직업경력 초기단계로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일에 쏟을 때이며, 직장에서의 업무량이 많으면서 아직 위치가 확고하지 않아 직업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것으로 지적된다(Rapoport & Rapoport, 196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로의 전이시기를 늦출수록 직장역할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간의

긴장가능성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 대상 남성들의 경우에도 아버지로의 전이가 빠르다고 지각하는 응답자들과 'on-time' 응답자들에 비해 전이가 '늦은' 응답자들이 직장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완전 초심자' 단계는 지났으며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늦은' 집단에 속하는 남성들은 업무를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처음부터 배우는 단계는 지나서 업무의 성격파악이나 수행에 나름대로 자신의 패턴을 자리매겼다고 응답하여 직업역할 수행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하는 응답자들도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늦은' 아버지들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직업역할 스트레스로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서, 직장초기의 새로운 업무익힘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측면의 스트레스를 역시 경험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전이시기 집단 간에 직업스트레스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날 뿐 서구문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늦은' 아버지들이 다른 전이집단에 비해 직업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즉 서구문헌들이 주장하듯이 30대로 넘어가면서 직장역할 요구(career demand)가 줄어들고 정서적, 경제적 압박이 줄어드는 경향이 한국의 젊은 직장남성들에게서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직장역할과 가족역할이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출근을 해야하거나 갑작스런 야근 때문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놓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점에 있어서도 전이시기 집단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직장 남성들은 이러한 정규업무 외에도 퇴근후 술자리나 모임 등이 빈번하며 이러한 비공식적 모임을 회사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러한 비공식적 모임 등으로 집에 늦게 귀가하는 횟수에 있어서 전이집단간에 별다른 체계적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자녀출산과 함께 퇴근 후 친구들과, 동료들과 술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는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변화와 함께 기업의 분위기도 직업역할과 가족역할간의 긴장가능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응답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를 "시절이 좋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본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변화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남성들이 직장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역할 태도의 변화나 개인, 가족적 수준에서의 변화만으로 남성의 적극적 가족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일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점차 탈피하여 가족에 중요성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가족지향적 정책과 운영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된다는 사용자의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의 하나로 탐색하고자 하였던 전이시기 집단별 차이가 본 조사 대상 남성들에게서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출산행동의 독특한 획일성, 즉 첫아기 출산이 결혼 후 1-2년에 대개 집중되어 있어서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의 차이가 출산시기를

조정된 다양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결혼연령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전이시기에 따라 역할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나 난다는 서구의 연구들과 달리, 집단간 차이 없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아버지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녀출산과 아버지됨에 대한 문화적 기대치가 크고 잘 자라잡은데 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2) 전체 생애사: 생애사에서 나타난 생애전환점과 남성의 노년기 삶의 질¹⁰⁾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이 과거 생애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 자신의 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인식하는 생애사건, 생애경험에 주목하였다. 현재 삶은 과거 경험했던 여러 중요한 전환점들의 결과이며, 노인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과거 삶의 굴곡들은 현재 노인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의 배경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남성노인들의 노년기 삶의 질을 표현하는 테마가 무엇이며 이것이 과거 생의 경험과 연결되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탐색을 위하여 전환점 개념을 분석의 중심축으로 하였다.

이론적 관점 : 생애과정 관점을 이론적 틀로 하였다. '전환점'은 생애과정 관점의 중요 개념의 하나이다. 생애과정 관점은 전 생애동안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남성노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인 것으로 지적된다. 생애과정의 외현적 경력(가족사, 직업사 등)연구에 비하여 내면적 경력(삶의 과정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오오꾸보 고지, 1988)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남성노인들 스스로의 관점에 기초한 생의 전환점 탐색에 초점 맞추고자 한다.

연구진행 과정 및 참여자 특성 : **시 **노인복지관에서 살아온 이야기 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 중 3명의 남성노인들의 생애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7회에 걸쳐 수행된 집단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 노인들은 life line graph 작성하면서 생애단계별로 과거 살아온 이야기 뿐 아니라 현재의 삶, 즉 노인으로서 살아가기, 나이들어 좋은 점,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 session마다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 2-3인이 함께 하여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집단모임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 회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아정체성 모색 및 확인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과 함께 참여노인들의 생애사에 대한 상당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남성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 전환점으로 어떤 경험들을 주목하는가? 남성노인들의 과거 경험을 전환점의 개념으로 재구성해볼 때, 얼마나 다양한 전환점들이 이들의 삶의 과정에서

10) 이 사례는 한경혜(2004)의 논문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나타나며 어떻게 공동의 의미를 갖는 유형들로 분류될 수 있겠는가? 현재 삶의 모습과 삶의 질에 과거의 인생경험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참여노인들은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1개 이상의 복지관 프로그램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로서, 경제적 수준에 있어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인은 없어서, 일견 보기에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보였다. **복지관이 **시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지역에 위치한 것도 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했으며, 프로그램 진행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수집되는 생애사가 너무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 섞인 예상을 하게 되었다.

생애사 자료의 수집 과정 : 7회의 모임을 통하여 각 참여노인의 생애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첫모임에서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진솔한, 자기 성찰적 이야기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참여노인들에게서(예; “축소, 과장으로 진실성 있는 이야기 나오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 관찰되었다. 복지관이 상호작용의 장을 제공하지만, 그 상호작용은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 국한된 것이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적당한”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암묵의 동의가 복지관 노인들 사이에 존재함을 아래와 같은 노인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었다.

고 : 노인만 모인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옛날이야기는 말자...대부분 거짓말이고 자기자랑만 하니까..그런 물이 있어서 암암리에 압력이 들어옵니다.

박: (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왕따 있잖아요.

그러나 모임이 거듭될수록 참여노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모임의 초기에는 연구자들의 존재가 이들 노인들에게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할 때 노인들의 시선이 줄곧 진행자인 교수를 향하곤 했는데, 이는 이들의 이야기의 심리적 지향점을 보여주고, 이때 교수들의 존재는 자신들의 지난 삶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가 교수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변명의 제공자임을 상기시킨 듯 하다. 개인적 이야기를 하면서 7차례에 걸쳐 만나는 과정에서 점차 심리적 경계심이 완화된 측면도 관찰할 수 있었다. 모임 횟수가 많아지면서 참여노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조금씩 활발해졌고, 그전 모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도 하면서, “살면서 이제까지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상견례를 하고 모임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진 첫 번째 모임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은 참여 노인 중 한 명의 의견을 좇아 “나의 생의 노력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주제의 성격상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고생경험을 공유하는 세대”적 특징을 가진 이들 노인들에게 있어 이 주제는 개인적 체면손상의 위험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주제이므로 편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아직 모임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의 마음을 여는 효과 있었던 듯 하다. 박 할아버지는 대학교 때 고생한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했는데, 남성이 공개된 자리에서 흔히 하지

않는 정서표출 행동을 보인 것이 다른 노인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혹은 조금 더 open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 각 노인들의 삶의 핵심주제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날의 고생을 초기 군대생활의 어려움, 월남전 참전 등 군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는데, “군인으로서의 삶”은 이후의 모임에서도 계속 고 할아버지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를 이룬다. 첫 번째 모임 이후 6회의 모임은 매 시간마다 노인됨의 의미, 현재 일상의 모습, 미래에 대한 계획 등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생의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는 6번째 모임의 주제였다.

참여노인들의 생애사와 현재 삶의 만족도 : 과거의 전환점 경험이 현재 삶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노인들의 생애사와 현재 삶의 만족도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할아버지는 군에서 24년, 전역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에서 24년의 직장생활을 한 후 퇴직하였다. 군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전역 후 직장생활도 그가 가치를 두는 군대정신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둔다.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서울대 치대를 합격하고도 육사를 가야만 했고, 그래서 접어든 군인생활이지만 지휘, 통솔을 좋아하는 자신의 적성과 맞아 능력을 인정받는 만족스러운 군생활을 하였으나 정치적 이유로 “별을 달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된다. 전역 후 들어간 회사에서도 지휘자, 관리자, 통솔자로서의 군대에서의 삶의 방식을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협력사 사장까지 지내고 퇴직을 한다. “별을 달아보지 못하고 전역하였으므로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는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군생활에서 내재화된 “지휘자, 지도자, 통솔자가 평생의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고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나오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정도의 활동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현재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건강, 경제적 형편, 가족 등 생활전반에 걸친 객관적 삶의 질이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생활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0점대로 낮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박 할아버지는 끼니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의 극히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하면 죽는 줄 알고”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공채 1기로 시멘트 회사에 취직을 한다. 이때는 한국사회가 경제부흥과 재건의 시기로 “새마을운동에도 세멘트가 없으면 안 되는 때라서 밤을 새울 정도로” 일이 많았고, 박할아버지에게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니 승진도 빨랐던” 성취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직업생활은 평탄하였던 반면 가족생활은 그렇지 못하여서, 결혼 후 1년 4개월 만에 부인이 암으로 사망하고, 갓 태어난 아기를 기를 수가 없어 박할아버지는 서둘러 재혼을 한다. 그 딸은 성장기를 대부분 외갓집에서 보냈고,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4년제 대학교육을 시킨 반면 이 딸은 전문학교까지 뿐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지금도 박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프다. 퇴직한 후 갑자기 노인이 된 것 같지만 “건강만 하면 꿈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박 할아버지는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수영, 등산, 스포츠

댄스 등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말쑥하고 건강한 모습의 자신감 넘치는 노인사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권을 부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 부인 중심으로 짜여진 가족관계 구조, 노인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노인네 취급하는 사회 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40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 자녀들을 아직 다 결혼시키지 못한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도 박할 아버지가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위의 두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배 할아버지는 지금이 자신의 생애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배 할아버지의 life line graph는 50-60대에 최정점에 달하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6세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족이 옮겨오면서 시작된 고생과, 월남전까지 참전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모은 재산을 형님 사업실패로 다 잃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오랜 외항선원생활을 해온 지난날에 비하면, 퇴직하고 “가족과 함께 쉬는” 지금이 비록 “10원 한 장 버는 것 없지만” 가장 행복하다. 해군에서 전역하여 39살에 시작한 외항선 기관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배를 못 탈 것 같다”고 부인에게 하소연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달라”는 부인의 말에 배 할아버지는 52세에 퇴직할 때까지 배를 탔고 돈을 벌만큼 벌었다. 외항선이었기 때문에 한번 배를 타면 오래 집을 비워야 했지만, “지금도 부인과 한 침대를 쓸 만큼” 사이가 좋고,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듯 하다. 복지관에 매일 나와서 그리고 싶은 그림과 붓글씨를 쓰고 관심있는 전시회 구경을 다니면서 소일하고 있는 현재의 생활에 90점의 높은 점수를 줄만큼 만족하고 있다.

생애전환점과 노년기 삶의 질 : 참여노인들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이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자면 배 할아버지는 삶의 질이 높고, 고, 박 할아버지는 삶의 질이 낮다고 분류할 수 있겠다. 이들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여겨지는 건강, 경제상태, 복지관이나 봉사활동 참여 등의 사회활동의 정도 등에서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참여노인들은 이런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며, 각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이들 삶의 조건들과의 관련성의 방향도 예측되는 것과 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현재 삶의 질은 오히려 이들의 과거 삶의 모습들 -삶의 중심테마, 전환점 등-과 이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현재의 평가와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참여노인들의 현재 삶의 질을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전환점 및 삶의 중심테마와 연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배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배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이사”와 “19년 해군생활을 끝내고 39살에 전역하여 외항선원이 된 것”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 이전은 대부분의 생애전환점 연구에서 삶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배 할아버지에게는 한국땅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바라본 밤의 부산항의 모습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광경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은 일본과 한국생활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일본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그 후 삶의 경로가 매우 달라졌을 가능성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주는 배 할아버지에게 중

요한 전환점의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전환점은 군생활을 하면서 월남전까지 참전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모은 재산을 형님이 사업한다고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된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외항선원으로의 취업이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배를 오래 타야하는 외항선원 생활은 열대 기후와 싸워야 하고 가족과 오래 헤어져 있어야 하는 등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부인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힘든 것이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아달라”는 부인의 편지에 어려움을 참고 52세까지 외항선원 생활을 하였던 것, 이것이 지금의 배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능케 하는 힘인 듯 하다.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딘 힘든 외항선원 생활’은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몫을 열심히 했음’과 등치되면서 “지금은 10원 한 장 못 벌지만” 가족 내에서의 위치나 가족 원과의 관계가 안정적인 그런 삶의 바탕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또한 가족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으면서, 편지 등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표현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배 할아버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두명의 남성노인과 달리 경제활동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모습을 보였고, 이 점이 배 할아버지와 다른 두 할아버지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고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의 생애 전환점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 할아버지는 10대 후반의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육사로 진학했던 것, 그리고 24년 동안의 군생활을 끝내고 전역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자신의 삶의 전환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고 할아버지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이러한 전환점들에 의한 ‘삶의 경로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나 해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전환점이나 변화보다는 오히려, 군생활을 끝내고도 “변화하지 않는”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삶, 여전히 자신을 “지휘자, 통솔자 역할”로 조망하는 생활자세 등, “변화없음, 변화하지 못함”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전역하여 삼성에 입사한 후에도 고 할아버지는 군대식 운영방식과 철학을 기업경영에 적용하였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가족생활에도 예외가 아니며, 모든 현역에서 물러난 현재에도 가장 주요한 삶의 구성방식이다. 그의 지휘와 철학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젊은 시절의 삶을 주도했던 주요 테마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노년기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그에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갖지 못한 고 할아버지의 객관적 현실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 할아버지는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과거 자신의 선택, 의사결정 등에 대해 되돌아보거나 이를 조절, 변화시킬 필요성은 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꾼 전환점으로 두 가지 생애사건을 기억한다. 하나는 결혼 1년 4개월만에 닥친 부인의 갑작스런 죽음이다. 갓난아기였던 큰 딸을 키우기 위해 곧 재혼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부인의 엄마노릇에 대하여 주위에서 “애기를 때리더라, 잘한다 못한다. 말들이 많아서” 이럴 바에는 “다른 데로 뜨자, 거기 가서는 (재혼사실을) 쉬쉬 하자”고 생각하고 거주지와 함께 잘 다니던 직장까지 옮겨 버린다. 그렇지만 딸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계속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애를 대하는 게 자기가 낳은 애하고 같을 수는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박할아버지도 “말 못하는 심적 갈등”을 겪는다. 그 때문에 재혼한 부인에게 “아주 100% 잘 할 수가 없었고 그건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는 박 할아버지의 부부관계가 아주 만족할만한 관계는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도 “그 뭐랄까 항상 뭐가 이렇게 인생에 걸려있는” 마음이고, “그 여자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첫 부인의 죽음은 박할아버지에게 “운명의 전환점”이다.

첫 번째 전환점이 “어쩔 수 없이 닥쳐온 것”이었다면 박 할아버지 삶의 두 번째 전환점은 “내 스스로가 저지른 것”이다.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거의 전 재산을 날리는 정도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사건인데, 이는 박 할아버지의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광릉에 사두었던 땅을 팔아 “집 조그만 거 하나 건졌지만” 이 부도사건과 함께 경제권은 부인에게 넘어가고, 가족 내에서 박 할아버지는 “내가 진실하게 해도 불신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원들의 그런 태도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부인위주로 구성된 가족관계에서 박 할아버지가 느끼는 소외감은 7회의 모임 중간중간에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박 할아버지에게 있어 과거에 경험한 두 번의 전환점적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의 형태로 현재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사례는 생애사 연구과정 및 생애사 자료를 통한 남성의 노년기 삶의 질 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 참여한 남성노인들의 현재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여겨지는 건강, 경제상태와 같은 현재의 자원요인이나 복지관이나 봉사활동 참여와 같은 사회적 통합성 정도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참여노인들은 이런 삶의 객관적 여건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며, 각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이들 삶의 조건들과의 관련성의 방향도 예측되는 것과 별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의 현재 삶의 질은 오히려 이들의 과거 삶의 모습들 -삶의 중심테마, 전환점 등-과 이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현재의 평가와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 경험한 전환점적 사건의 경험이 아직도 진행형의 형태로 현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남성의 성인후기 삶의 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생애과정 전체의 맥락에서 개개인의 삶을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생애사적 연구의 가치를 보여준다.

두 번째 모임에서 대부분의 참여노인들에게 있어 이미 삶의 핵심 테마가 떠오르기 시작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모임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모임이 진행되고 생애사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모임초기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이들 노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setting에서 행해진 집단면접임에도 불구하고, 모임 횟수가 많아지면서 참여노인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자 매우 사적인, 그래서 “살면서 이제까지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특히 사적인 일이나 정서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노인들도 매우 활발히, 열성적으로 표현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¹¹⁾ 그런 면에서 집단면접도

11) 이 글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생애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생애사건을 기술하는데 있어 준거점(reference points)이 남성은 주로 직업경로 및 거시적 사건이라면 여성은 가족적 사건에 치중되는 등의 특성차이를 볼 수 있었다. 생애사 서사구조 및 전략에 있어서의 남녀차이에 대한

잘 운영하면 생애사의 세밀하고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남성노인들의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제 및 방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이들 노인들이 젊은 시절 고생한 이야기 서술에서 관찰 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이 지독한 것으로 회상되면 될수록 “내 할 일을 다했다”는 현재 삶의 의미와 성취가 확인되고, 지나온 생의 ‘노력’이 값진 것이 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 한국사회에서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인’집단에 속하게 되었지만, 젊은이들이 지금 누리는 풍요는 노인세대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도덕적 위상을 확인하는 기제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사에 대한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 무의식적/의식적으로 상이한 버전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이 연구과정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박 할아버지는 6번째 모임에서 비로소 자신의 결혼생활이 재혼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그러자 그전 모임에서 이들 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의미와 맥락이 분명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달을 넘게 만나면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라포가 형성된 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 등이 이러한 정보를 자진하여 제공하도록 작용한 것 같다. 1-2회의 면접에서 얻을 수 있는 생애사 자료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할 때는 그 제한점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 나오는 글

이상에서 생애사 방법의 특징과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남성의 삶을 탐색한 연구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애사 방법은 거시적인 사회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한국남성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IMF 사태”로 불리는 국가적 경제위기와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는 오늘날의 한국남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이혼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구학적 지표들은 거시적인 사회상황의 변화와 함께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개개인의 행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남성의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 자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축적된 코호트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남성의 삶의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코호트 분석을 통한 남성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변화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행위가 모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을 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화시켜 거시적 수준의 집합적 행위변화로 나타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경혜, 1993b).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처럼 사회사와 개인의 생애사를 연계하여 남성의 생애와 삶의 미시적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성역할과 가족이데올로기, 그리고 직장문화 등의 변화와 함께 한국남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였지만, 이를 실제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적으로 보여준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적인 생애사 방법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행동변화로 나타나며, 또한 그것이 개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과학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두 가지 방법의 생애사 연구는 한국남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유철인(1995). “배우지 못한 고아”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국제결혼여성의 삶. *한국문화인류학*, 28.
- 유철인(1998).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 탐구*, 7(1), 186-195.
- 이재인(2004). 한국 기혼 여성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유형과 결혼 생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겨울호), 103-120.
- 한경혜(1991). 세대관계 측면에서 본 Life Course 전이와 역연쇄전이의 시기 -결혼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1(1), 36-49.
- 한경혜(1993a).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의 변화. 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경혜(1993b).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한국사회학*, 27, 295-317.
- 한경혜(1996).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전이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231-244.
- 한경혜(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5.
- Bruner, J.(1987). Life as narrative. *Social Research* 54. 11-32.
- Cohler, J. & Hostetler, A.(2003). *Linking life course and life history: Social change and the narrative study of lives over time*. Handbook of the Life Course, 560-561.
- Featherman, D. L. & Sorenson, A.(1983). *Societal Transformation in Norway and change in life course transition into adulthood*,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orking Paper, 82-124.
- Frank, G. & Vanderburgh, R.(1980). Life histories in gerontology: The subjective side to aging, In new methods for old age research: Anthropological alternatives, ed. C. Fry and J.

- Keith. Chicago: Loyola University Center for Urban Policy. 155-171.
- Heidegger(1962). *Being and time*. New York : Harper & Row.
- Hogan, D. P.(1980).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s a career contingency. *American Sociologist Review*, 45, 261-276.
- Hogan, D. P.(1978). The variable order of events in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573-586.
- Hogan, D. P.(1982). *Transitions and social change: The early lives of American men*. New York: Academic Press.
- Lieblich, A., Truval-Mashiach, R. & Zilber, T.(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ndelbaum, D. G.(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Mandelbaum, G.(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Matthews, S. H.(1983). Analyzing topical oral biographies of old persons: The case of friendship. *Research on Aging*, 5(4), 569-589.
- Marini, M. M.(1987). Measuring the process of role change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16, 1-38.
- Marini, M. M.(1984). The order of even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ology of Education*, 57, 63-84.
- Modell, J., Fursternberg, F. F. Jr. & Hashberg, T.(1976). Social change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History*, 1, 7-31.
- Morin, F.(1982). Anthropological praxis and life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History*, 3(1).
- Myerhoff.(1978). *Number Our Days*. New York: E. P. Dutton.
- Pelto, P. J. & Pelto, G. H.(1978). *Anthropological research: The structure of inquiry (2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der, N.(1965). The cohort as a concept of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842-861.
- Schrager, S.(1983). What is social in oral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History*, 4(2), 76-98.
- Wentowski, G. J.(1981). Reciprocity and th coping strategies of older people: Cultural dimensions of network building. *The Gerontologist*, 21(6), 600-609.